

## 전기소비자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추진

### 전기공급관련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제기된 민원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조물책임(PL)법 도입,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최근의 새로운 규범에 적합한 제도를 발굴하여 금년 하반기 개정예정인 전기공급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업무관련책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전기공급관련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매월 2회 이상의 검토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T/F 구성 : 팀 장(산자부 전기소비자보호과장)  
한 전(영업처장, 영업계획팀장, 영업운영팀장, 요금제도팀장)  
전문가(홍익대 교수 권대우-소비자보호법 전문)  
간 사(산자부 담당사무관)

또한, 산자부 및 한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전기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획기적인 지역개발 투자와 연계 추진

### 산업자원부, 유치지역 지역발전 장기구상 수립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역발전 장기 구상」에 따르면,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향후 2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지역개발 재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 ① 핵심사업(8,600억원)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양성자가속기, 한수원(주) 이전
- ② 지원사업(7,500억원) : 3,000억원 이상 지원금, 각 부처별 지역지원사업
- ③ 지역개발(4,900억원) :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주거단지, 관광·레저단지 조성

또한 이와는 별도로 유치 관심지역의 지역별 숙원사업 지원방안을 6월 중순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6월 9일~13일까지 6개유치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장기구상에 대한 지역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2023년까지 향후 20년간 총 2조원이 넘는 지역개발 자금이 투자되어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尹鎮植 장관)가 마련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발전 장기구상」에 따르면, 유치지역에 대해 핵심사업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업(6,700억원), 양성자가속기 사업(1,6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300억원)으로 인해 총 8,6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3,000억원 이상의 지원금(지자체장이 사용용도 결

정), 각 부처가 지원하는 주택개선, 문화시설, 도로·교량 건설 등의 지역사업(4,500억원 규모) 실시에 따라 총 7,500억원이 별도로 투자될 계획이다.

또한 양성자가속기 개발 등 첨단기술 파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테크노파크(800억원), 산업단지(1,500억원), 배후 주거단지(1,100억원), 관광·레저단지(1,500억원)등의 조성을 통해 총 4,900억원의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지역발전 장기구상은 유치를 희망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이며, 이와는 별도로 유치 희망 지역별 숙원사업 지원방안을 6월 중순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발전 장기 구상이 시행될 경우, 해당 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에서 환경 친화적인 산업, 주택, 복지, 문화·레저시설을 골고루 갖춘 전원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는 3,000억원 이상의 지역지원금, 한수원 본사 이전, 연구시설 및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주민세 납부 등으로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며,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 소득이 증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택·도로 개선,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3,000억원: 2002년 기준 지자체별 지방특별회계의 5~31배 수준

※한수원 본사 이전시 주민세 연간 36억원 증가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측은 유치지역 지역발전 장기구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6월 9일부터~13일까지 군산, 영광, 부안, 장흥, 고창, 영덕 등 6개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6개 지역 이외에도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지자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설명회를 계속해서 가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전, 필리핀 내 10만kW급 발전소건설 합의서 체결 말라아학력, 일리한학력에 이어 3번째 발전소 건설 추진

한국전력(사장 姜東錫)은 지난 6월 3일 신라호텔에서 필리핀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빠나이(Panay)섬의 10만kW급(5만kW×2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추진합의서(MOA)를 한전 강동석 사장과 필리핀 페레스(Vincent S. Perez) 에너지부 장관 간에 체결하였다.

이번 사업추진합의서는, 지난 4월 1일 Panay섬 Antique 주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으로 한전

은 필리핀 전력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필리핀산 석탄을 활용, 환경친화적인 流動層보일러 연소방식의 신기술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며, 향후 25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는 BOO(Build, Own & 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본 사업추진합의서(MOA) 체결로 Panay 지역의 전력부족 해소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동일 지역의 후속 30만kW급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권에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어 필리핀 정부차원에서의 각종 사업지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필리핀 전력설비는 1464만kW로 우리 나라(5380만 kW)의 27% 수준이며, 매년 8.6%씩 늘어나고 있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향후 2012년까지 총 715만kW의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국내에서 쌓아온 풍부한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필리핀 최대규모의 120만kW급 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과 65만kW급 말라야화력발전소 성능복구 및 재가동 사업 등 지난 '95년

이후 약 10억불 규모의 투자를 하였고, 이외에도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외무부산하)와 공동으로 배전계통 개선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전은 일리한발전소 인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등 지역협력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 양국의 경제협력 뿐 아니라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름철 전력사용 줄이면 지원금 드립니다”

한전, 7월 21일~25일, 8월 7일~22일 대상으로 지원제도 시행

전기사용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올 여름 휴가나 설비보수 또는 조업 스케줄만 잘 조정해도 상당한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은 에어컨 등 냉방부하로 인해 여름철 낮시간대에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7월 21일~25일, 8월 7일~22일 기간 중 한전과 고객이 사전 약정한 기간에 전력사용 규모를 줄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

이 제도는 전력설비 투자비 절감과 부하율 향상 등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전기요금 인상억제 효과도 있다.

지원종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일반용 및 산업용 고객이 집단휴가나 보수 등으로 낮시간대의 최대전력을 전년대비 50% 이상 줄이는 「휴가·보수기간 지원제도」와 계약전력 500kW 이상의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고객이 피크시간대(오후 2시~4시)의 평균전력을 오전보다 20% 이상 줄이는 「자율절전 지원제도」가 있다.

특히 올해는 참여 대상고객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 단가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휴가·보수기간 조정 지원제도의 경우 일부 이행(약정이행일수 50% 이상) 고객에게도 지원금을 지급(50%)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넓혔다.

지난해의 경우 「휴가·보수기간 지원제도」에 총 1,281개 업체가, 「자율절전 지원제도」는 466호가 참여하여 각각 170억원과 102억원의 전기요금을 감액 받았다.

한편, 한국전력은 지난 6월 16일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Swap 계약을 적기에 해지함으로써 환위험 완화는 물론 51만불의 수익도 거두었다.

지난 1997년 한전은 4건의 파운드화 및 엔화표시 유로본드 4.25억불을 조달하면서 채권의 금리절감과 환위험 회피를 위해 통화 및 이자율 Swap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년 1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였다.

이에 따라 원본채권이 없어진 Swap 계약들에 대해 환율 및 금리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가장 유리한 시점(파운드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가 가장 낮은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 없이 51만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번 Swap 계약 해지로 환위험 및 금리위험 규모를 줄임과 동시에 달러외채 비중을 축소함에 따라 통화 포트폴리오도 개선되었다.

단일기업으로서는 국내 최대의 외채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은 그 동안 체계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해 왔으며 적기 외환거래를 통한 재무안정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또한 한국전력은 대구광역시 154kV 지중송전선 공사 구간 중 봉덕변전소 연결구간에 대해 대구 Camp Walker 미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약 170억원의 공사비를 절

감하게 되었다.

대구시 달서구 두류변전소와 남구 봉덕변전소를 연결하는 지중송전선로 공사구간은 지하철 1호선 및 4호선과 주택가 도로를 경유하므로 예산이 많이 드는 터널공법이 불가피하였으나, 미군 Julius C. Washington 중령의 적극적인 협조로 Camp Walker부대 지하로 송전선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한·미간 SOFA 협의과제로 채택, 합의를 보게 되었다.

이로써 미군부대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많이 드는 터널공법이 아닌 미군부대 내 1,200m를 굴착, 지하로 송전선로를 연결하게 됨으로써 기존설계보다 780m의 공사구간이 단축되었으며, 공법도 예산이 적게 드는 관로공사를 적용함으로써 케이블절감액 약 25억원을 포함해 총 170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술표준원, 태양 에너지 개발 보급에 획기적 계기 마련

### 국제기준에 적합한 규격의 대폭 제정으로 대체에너지 기반조성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태양열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태양열 이용 설비 관련 KS 규격을 국제 수준으로 전면 제·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태양열 관련 KS규격은 주택용 태양열온수기 등 6종에 불과하나 태양열 집열기의 시험방법 등 ISO 국제 규격의 14종을 KS규격으로 제정하면 국제수준의 규격을 갖추게 된다.

국제 수준의 태양열 설비에 대한 규격의 제정으로 태양열 설비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내수시장 수요 확대와 해외시장(연간 40억불 규모: 2001년 기준)의 수출 기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2.9.26)과 동법 시행규칙의 제정(2003.1.3)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6월중에 「태양열 이용 기술 관련 KS 규격」을 대폭 제정 고시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대다수의 KS규격은 태양 에너지 복사 측정장치의 시방서와 분류, 태양열 급수난방기 및 축열기 연결파이프, 또 그 부속에 대한 탄성재료의 평가방법 등 총 14종의 규격을 신규로 제정하고 기존규격 6종중 주택용 태양열 이용 온수기 등 2종의 기존 KS규격은 국제수준으로 개정하여 고시한다. ☑

**캐나다, 하계 전력부족 우려**

주 수도 토론토가 SARS 문제로 중요하고 있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여름을 얼마 앞두고 전력공급을 불안해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력수요가 피크를 맞이하기 전에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3기의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의 도매전력시장을 규제하는 독립전력시장기관(IMO)은 만약 3기의 운전이 늦어지고 작년과 같은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공급예비력이 크게 저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에너지성은 1년 전의 7월에 비하여 150만kW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3기의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재개가 늦어져도 정전리스크가 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한 여지도 있다. 정기 점검을 위해 운전을 중지하고 있는 여러 발전소의 운전재개가 늦어질 것 같은 전망인데다가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게 되면 하천의 수위가 내려가 수력발전량의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온상승은 원자력발전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호수를 이용하여 냉각시키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수온이 상승하면 효율이 떨어져서 발전량이 저하하게 된다.

문제는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되는 6월에서 8월까지의 3개월 동안이기는 하지만 최대의 오산은 역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재개가 늦어지고 있는데 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경제성 악화로 '90년대 후반부터 운전을 못하고 있던 브르스 A발전소의 3, 4호기(CANDU로, 각 75만kW)와 픽카링 A발전소의 1~4호기(동, 51만 5000kW)의 운전을 재개하기로 되어 있었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들어 브르스 3, 4호기(4월)와 픽카링 4호기(5월)의 운전재개를 승인하였다. 이 가운데 브르스의 2기는 7월까지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픽카링 4호기가 이전출력에 도달하는 것은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분산형전원특구 준비**

영국에서는 분산형전원(DG)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DG의 접속특별구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라든가 가스전력시장국(OFGEM)은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총판매 전력량에서 점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10%로 끌어올리는 한편, 코제너레이션 용량을 현재의 2배인 1000만kW로 확대하고자 여러 가지의 지원조치를 강구하

고 있다. 특별구 계획의 하나로 배전회사가 특별구에 집중적으로 설비투자를 시행하였다. DG의 수용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빠르면 2004년에는 시작될 것이다.

배전계통은 원래 송전계통에서 유입하는 전력을 수요시설에 배급한다는 전제하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원을 받아들일 용량은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계통에서 대량의 DG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증강 외에 계통보호 장치라든가 전압안정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게 된다. 운용면에서도 보조적서비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오퍼레이션 기능을 도입하여 송전계통과 같은 능동적인 계통으로 그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배전계통의 발전을 의미하며 막대한 투자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별구 계획은 이 투자를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DG 접속환경정비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DG의 조기확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특별구의 설치는, DG기기메이커는 물론 폭넓은 분야에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주어 새로운 경제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배전회사로서는 DG를 바람직한 지역으로 유도함으로써 배전설비투자의 절약이라든가 로스의 저감 등 효과가 기대되어 이미 신규개발지역 등에서 자발적으로 DG 수용태세를 정비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현재 OFGEM에서는 DG의 특별

구의 집중이라는 현상이 기술면이나 경제면에서 계통이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三菱重工業**

풍력생산능력 배로 증가  
6월부터 월 생산 최대 40기  
국내·외의 수요증가 예상

三菱重工業은 풍력발전기의 생산 능력을 6월부터 증가하여 현재의 월산 20기에서 40기로 배가함에 따라서 국내·외의 풍력발전기의 수요증대에 대응한다. 동사는 이번에 유러스 에너지저장장치로부터 岩手縣에서의 대규모 윈드팜용으로 43기를 수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형안건도 결정되었다. 과거 미국에 대해 한번에 100기 이상을 수주한 실적이 있다. 증산체제는 이번의 국내 대형수주에 따른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내외의 왕성한 수요를 예상하여 체제를 정비한다.

三菱重工業은 대형발전기 분야의 날개(브레이드)에서 낫셀까지 모든 것에 손을 대는 유일한 국내메이커이며, 내외에서 납입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4월 현재의 수주베이스로 누적판매 수는 1406기, 합계출력 62만 3600kW, 그중 국내는 86기, 4만 3610kW이다.

국내 최초의 출력 2000kW기 외에

저풍역(低風域)에서의 발전효율을 15% 정도 끌어올린 100kW기를 2002년도에 투입하여 제품라인업을 확충하였고, 현재는 유도발전기 타입, 영구자석식 동기발전기 타입의 양쪽에 손을 대 300kW기에서 2000kW기까지 7기종의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동사의 長崎 조선소에서 제조하고 조립작업은 1대당 10일 정도라고 하며, 이 생산체제를 증강하게 된다.

이번에 유러스로부터 수주한 타입은 작년도 제품화한 저풍역에서도 효율 좋은 출력 1000kW기. 岩手縣釜石, 遠野, 大槌의 3개시에 건설되는 「釜石광역윈드팜」(출력 4만 2900kW)용으로 43기를 수주하였다.

수주규모는 풍력발전기만으로 총 공사비의 약 반인 50억엔 정도. 이 윈드팜은 머지않아 착공하여 2004년 11월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일사업주체로는 국내 최대규모로 일반 가정 약 3만 세대분이며, 3개 시의 거의 모든 전력을 감당한다고 한다. 발전전력은 東北電力에 판매된다.

브레이드까지 포함한 전체국산품은 40kW, 100kW기를 富士重工業이 제품화하고 있으나 메가와트급이라고 하는 1000kW 이상의 대형기는 三菱重工業만인 것이 현상이다. 국내에서는 石川島播磨重工業(IHI)이 1900kW기로 브레이드를 제외한 모든 것의 국산화를 위해 라이선스교섭을 추

진하고 있다. 그 외에 荏原의 풍력발전기의 합판회사 「荏原후라이데러윈드파워」도 풍력발전기의 내제화를 목적으로 4월 1일에 영업을 개시하고 있다.

**미국에너지기업 주가  
바닥을 벗어나**

“엔론의 그늘”에서 탈피

작년부터 불안정하던 미국의 에너지기업의 주가가 바닥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CMS에너지, 리라이언트·리소시즈, 다이너지 등 기업군은 엔론 문제 발각 이후 주가가 급락, 등급이 인하여 부채도 커져서 일부기업은 경영의 앞날이 위태로워보였다. 그러나 문제시되었던 에너지거래사업에서 연이어 철회, 지금에 이르러서는 자금의 재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자본시장으로부터의 평가는 최악기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규제완화의 물결을 타고 그때까지 지역의 전력·가스공급을 담당하고 있었던 에너지기업이 전미규모에서의 도매라든가 소매가 자유화된 다른 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기업으로는 텍사스 주를 본거지로 하는 리라이언트·에너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리라이언트·리소시즈, 미시건 주의 전력·가스회사인 콘슈머즈·에너지

의 모회사인 CMS 에너지 등이 있다.

자본시장은 이러한 기업군이 적극적으로 행한 거래사업의 성장성을 예견하였고 주가는 '90년대 후반부터 상승, 2001년 여름경에는 회사에 따라 30~50불의 주가를 매기고 있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엔론의 부정거래 문제가 발각된 때부터 엔론문제가 일어나니까 거래사업에 손을 댄 에너지기업에 대한 신용력이 저하되어 거래의 유동성이 떨어져 시장규모가 단번에 위축되었다. 실제로 엔론과 같은 부정거래에 관련된 기업도 있어서 2002년 5월경부터 각사의 주가는 대폭으로 하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크시의 주가가 30~40불이었던 리라이언트, 40~50불을 매기고 있던 다이너지는 어느 것이나 거의 1불까지 하락했다. CMS는 일시 30불약(弱)까지 상승하였던 주가가 3불까지 떨어졌다. 이 밖에 일본 진출도 고려하고 있던 엘파소,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을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던 듀크 등도 크게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었다.

많은 기업의 등급이 하락됨으로써 자금조달이 곤란하게 되었고 방대한 부채가 경영에 압박을 가하였다.

이 때문에 2002년 여름부터는 성장성의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던 거래사업에서의 철퇴가 연이어지고 종래의 규제사업에 가까운 본업으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기업이 눈에 띄게 시작하

였다. 따라서 올 봄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금의 재조달에도 전망이 보이기 시작하여 채무불이행의 위기에 서는 일단 벗어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주당 주가도 바닥을 벗어날 기운을 보이고 있어 리라이언트, CMS, 다이너지 등의 경우 5~8불 부근까지 회복되고 있다. 피크시의 주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원래 이전의 주가가 너무 높았다는 견해도 있으며 자본시장에서의 신용력을 서서히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다.

### 東京電力, 수급불안시 수시 조정 계약

할인단가, 종전대비 2배  
가입이 용이하도록 조정률도 완화

東京電力은 수급조정계약을 재검토 하였다. 수급불안시 東京電力의 요청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삭감하는 수시조정계약에 대해 할인단가를 종전의 2배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가입시의 부하조정률도 완화하고 있어 고객에게는 가입하기 쉽고 코스트메리트도 커질 것이다. 올 여름의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원칙적으로는 금년도에 한한다. 東京電力에서는 수시조정계약에 대해서는 약 500건·120만kW 정도의 계약이 되어 있고 실효치로는 80만kW 정도로 예측

된다. 5월 중순 이후에는 이것을 30% 이상 확대할 것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고객을 순방하고 있다. 가입요건의 완화로 가입자 획득에도 더욱 탄력이 붙기를 바라고 있다.

수급조정계약에는 계획조업 등으로 하계 피크시에 부하를 적게 하여 요금 메리트를 받는 계획조정계약과 수급이 불안하였을 때 東京電力의 요청에 따라 부하를 조정하는 수시조정계약이 있다. 東京電力에서는 원자력의 정지에 따른 공급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면에 대해서도 피크컷대응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급조정계약 가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입요건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미 5월 중순 이후 고객에게는 가입요건의 완화와 할인폭의 확대 등을 설명하고 규제분야인 고압 500kW 이상의 고객에 대한 선택약관에 대하여 19일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에 신청하여 확정됨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적용했다.

신고한 것은 산업용에 대한 긴급시 조정계약, 업무용에 대한 업무용긴급시 조정계약, 주계약이지만 긴급시 조정이 포함된 시간대별 조정계약의 3종. 산업용은 회수에 따라 계산하며 3시간 전까지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부하조정전력 가능한 전력 1kW당 960엔, 1시간 전 요청시는 1120엔이 된다. ■